

2018년 3월 30일

emerics@kiep.go.kr

사우디아라비아, 여성의 경제 및 사회 활동 확대를 위한 정책 강화



-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최근 여성의 경제 및 사회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.
- 무함마드 빈 살만(Mohammad Bin Salman) 왕세자는 2016년 4월 발표한 '사우디 비전 2030'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2015년 22%에서 2030년 30%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.
 - 이후 여성의 기본권 강화, 경제 및 사회 활동 제약 요인 제거, 고용 확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및 계획을 발표하고 있음.
 - 또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2018년 3월 18일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현지 전통 의상인 아바야(Abaya, 전신을 가리는 여성용 검은 의복) 착용 선택권은 여성에게 있다고 밝히며, 여성의 자유와 기본권 강화에 대한 의지도 나타낸 바 있음.

표 1. 사우디의 여성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

부문	주요 정책 및 계획
기본권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여학생 체육활동 허용('17. 7) · 이혼 뒤 남편과 합의 시 자녀 양육권 확보 허용('18. 3)
사회 활동 제약 요인 제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018년 6월부터 여성 운전 허용 발표('17. 9) · 리야드, 젓다, 담맘 지역 경기장 입장 허용('18. 1)
고용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여성 항공기 조종사 채용 계획 발표('17. 9) · 여성 출입국 직원 채용('18. 1) · 검찰청 여성 수사관 채용 계획 발표('18. 2) · 여성 창업 시 남성 후견인의 동의 서류 제출 의무 규정 폐지¹⁾ ('18.2) · 여군 입대(사병) 허용('18. 2)

자료: 저자 작성.

1) 사우디에는 마흐람(mahram)이라는 남성 후견인 제도가 있어 결혼, 여행, 취업, 수술 등에 마흐람은 남편이나 아들, 미혼 여성은 남자 형제 및 부모의 동의 및 동행이 있어야 함.

- 사우디의 최근 여성 관련 정책 추진 확대는 여권 신장과 함께 사회적 비용 축소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.
 - 사우디는 종교적 이유로 여성에 대한 많은 제약을 두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청년층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음.
 - 2016년 기준 사우디의 성평등 지수는 세계 144개국 중 138위(중동 17개국 중 14위)로 낮으며, 남성 대비 여성 고용률은 21.1%, 소득은 남성의 1/5에 불과함.
 -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개혁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자국민의 58.5%를 차지하고 있는 30세 미만 청년층의 지지를 확보하고 온건 이슬람 국가로의 전향을 통해 자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.
 - 사우디 정부는 자국 내 여성의 사회 활동 제약에 따른 관련 비용을 줄이고 외국인 노동자 중심의 민간 부문에 자국 여성을 고용하여 국부 유출을 막고자 함.
 - 그동안 사우디 여성은 운전 제한으로 외국인 운전기사를 고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했으며, 이와 관련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.
 - 2017년 기준 사우디 전체 인구(3,255만 명) 중 외국인이 1,214만 명으로 37.3%를 차지하고 있음. 이들이 자국으로 송금하는 규모는 2017년 기준 378억 달러(사우디아라비아 GDP의 5.5%)를 기록하였음.²
 - 2018년 1월 자동차 공유업체인 카림(Careem)은 사우디 내 서비스 주요 대상이 여성인 점을 고려하여 향후 여성 운전자를 1만 명 이상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음.
 - 사우디 정부는 경제다각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구 대비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, 이를 위해 여성 고용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음.³
- 향후 여성의 사회 및 경제 활동 증가는 사우디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수 세력과의 마찰, 다양한 제약요인 등으로 실질적인 변화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.
 - 당분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강력한 개혁 의지로 인해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여성의 경제 활동 및 고용이 증가할 경우 이는 사우디의 장기 성장률과 민간 소비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.
 - 하지만 남성 후견인 제도 등의 관습 폐지나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.
 - 현지의 종교 지도자 및 보수 세력 중에 무함마드 빈 살만의 '온건 이슬람주의' 노선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있어 정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. **EMERiCs**

2) 외국인의 노동시장 참여가 가장 활발했던 2015년에는 총송금액이 사우디 GDP의 9.7%에 달했음.

3) 2015년 기준 사우디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4.0%로, 107개국 중 90위를 차지함.

참고자료

World Economic Forum, General Authority for Statistics, Bloomberg, CBS 등 참고

(작성: 손성현 전문연구원 /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)